

## 체계적 정책 추진, 국가 정체성 확립에 기여

### 이명박 정부 보훈정책 4년 성과

이달 25일이면 이명박 정부 출범 4년을 맞는다. 지난 4년 간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끝까지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보훈정책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내역 2면〉

### 국가수호 희생자 추모

튼튼한 안보의식 확인 계기 더 큰 대한민국 위한 동력으로

튼튼한 안보를 통한 나라사랑정신의 함양과 보훈 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 4년간 내실 있게 추진된 보훈정책은 향후 호국보훈정신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이루는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수호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추모를 실시함으로써 튼튼한 안보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알리는 한편, 국민의 호국보훈의식을 튼튼히 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이제까지 군 주관으로 열리던 제2연평해전기념식을 2008년부터 정부행사로 격상해 개최했다. 천안함 46용사 추모행사와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희생자 추모 행사도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엄숙히 거행했다.

특히 이들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전사자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등 최고의 예우와 국가적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50년간 유지된 보훈제도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보훈체계 개편'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오는 7월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와 국가의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훈처는 금년 상반기 중 시행령 등 관련 제반 규정을 마련해 보훈체계 개편을 완

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35만 명을 국가유공자로 격상하고 예우를 강화했다. 이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전투에 참여한 분들의 영예를 드높이는 한편 참전유공자들의 자긍심을 강화하는 등 보훈정책의 깊이를 더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2007년 월 7만원 수준이던 참전명예수당도 2012년

### 보훈체계 전면 개편

국가유공자 구분 예우 강화 호국보훈의식 함양 노력 지속

현재 월 12만원으로 인상됐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와 복지서비스도 크게 개선됐다.

서울보훈병원을 확대한 중앙보훈병원이 지난해 9월 개원했다.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의 최첨단 전문진료시스템을 갖춘 중앙보훈병원의 개원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방사선 종양학과 등 30개 진료과와 암센터, 심혈관센터의 전문진료센터, 전문질환 치료를 위한 8개 클리닉을 현재 운영하거나 향후 운영할 계획이다.

만 감면진료를 받던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상이가 없는 국가유공자(75세 이상, 혹은 선순위 유족 1인)에게도 2009년 7월 1일부터는 위탁병원을 통해 진료비의 60%를 지원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대폭 확충했다.

급속하게 고령화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노후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수원·광주·김해·대구 4개소에 보훈요양원을 건립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대전요양원을 신규개원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무주택 국가유공자 주택특별공급도 대폭 확대했다. 주택특별공급은 이전까지 장애인 등 타 대상과 함께 10% 범위에서 지원했으나, 2009년부터는 공급물량 5~10%를 우선 공급했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주택특별공급제도도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난 4년간 모두 7,000여 세대의 주택을 공급했다.

제대군인을 위한 각종 지원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2008년 대구와 광주에, 2011년에는 경기북부에 각각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새로 개원했다. 또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현재까지 46억 5,00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했다.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보훈처는 향후 보다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0년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희생에 후손들이 감사하고 보은하는 각종 국제적 행사를 실시했다.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에게 'Thank you 액자'를 전달하고, 유엔 참전용사 4,000여 명을 초청했다.

또 현지를 방문해 위로 감사행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정부는 정전 60년을 맞는 2013년까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그 숭고한 뜻을 기릴 계획이다.

### 보훈단체장 간담회 ... '보훈정신으로 하나된 국민'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보훈처 관계관들과 13개 보훈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훈처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각 보훈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보훈단체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립묘지에 국화 한 송이 바치세요

ARS 060-700-0625 / 한 통화 1,000원



- 2 정책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내역
- 9 특집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열린다

- 12 특집 2012 한반도 정세를 전망한다
- 13 시론 정치의 계절과 국가안보

- 14 미디어 '불장난' 막을 방책 안보
- 15 현장 경기 양평 지평리전투